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서초3동성당 | 1993년 10월 설립



● ● ●
논현2동성당 서초3동성당 잠실7동성당



서초3동성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9길 30

서초3동성당은 1993년 10월 서초동성당에서 서초3동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분리하고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신자 수 1,964명으로 진석빌딩 지하에서 전세를 들어 미사를 봉헌했는데, 지금은 신자 수가 4,900명에 이르는 큰 본당이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서초3동의 부지를 매입하여 본당으로 분리 설립된 지 약 10년 만에 모든 신자들의 땀과 노력, 집념과 투철한 신앙심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신축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



2018년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 빈곤 등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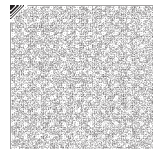
오늘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올려지신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한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성실하게 따라 걸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성모님

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칭송을 하며 ‘교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로 존경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포근함과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성모님도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가 되시어 하느님께 전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진 남북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북한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화해를 통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이사 2,4)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임무를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무고하고 약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폭력과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과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특별히 따뜻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을 닮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라면 무릇 자식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제4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이웃에 대한 무관심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 탈출한 난민 등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지난 역사에서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힘입어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하느님께 전구해주소서. 아멘.”

2018년 8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수영수정

입당송 |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ㄷ

화답송 |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환호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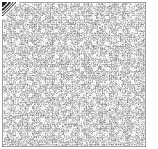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 루카 1,39-56

영성체송 |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감사송 (영광스러운 마리아의 승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
이 세상 나그네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